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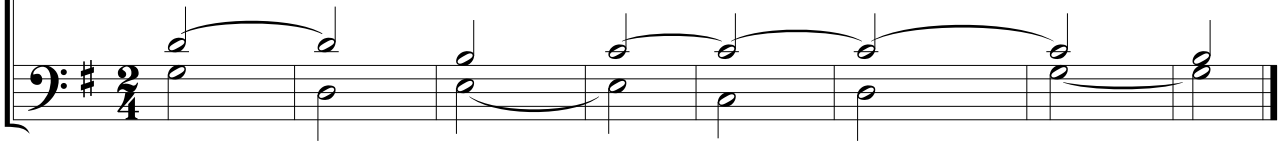
[성가대용]

## 위령의 날 둘째미사 [11월 2일]

시 편 116(114-115), 5-6. 10-11. 15와 16 ㄱ ㄴ ㄷ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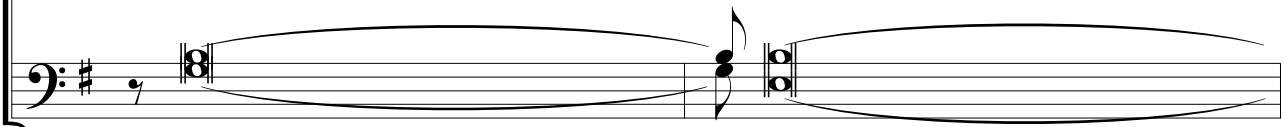
(후렴)나는주님 앞에서 걸어가리 라. 살아있는 이들의땅에서 걸으리-라.



1.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    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.

2. "나 참으로 비참하구나." 되뇌면서도      나는 믿었네.

3.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    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.



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     가 없는 나를 구해 주셨네.

문득 놀라 나는      말하였네. "사람은 모두 거짓말쟁-이."

아, 주님, 저는      당신의 종.     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 나이다.

